여수국가산단 '고부가·친환경 산업' 전환 본격화

1천354억 투입…연구개발·실증기반 구축

제품 고도화·사업화 중점 자원순환 체계

AI접목 AX 시스템 도입 '생산성 혁신'

서영학 시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고부가·친환경 사업 전환에 집중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사진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야간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친환경 산업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1천35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실증기반 구축 사업으로 각각 3건씩 총 6건이다. 기존 생산 기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미래산업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무탄소 연료 기반 나프타 분해시설(NCC) 공정기술 개발 ▲AI 기반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 소재 제조·친환경 기술 개발 ▲선박용 이산화탄소(CO_2) 포집 시스템 기술 개발·실증사업이다.

기반 구축 분야는 ▲여수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AI 기반 고부가 발포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등이다.

시는 신규 시설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생산 공정과 제품 고도화·사업화로 이어지는 데 중점을 두고 AI 기술의 현장 실증과 고부가 소재의 상용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함께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각 사업이 개별 기술 개발이나 시설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생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산단의 범용제품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가격 경쟁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확대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존 원료와 공정기술을 활용해 기술집약적 제품과 친환경 공정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전환도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일시에 다른 산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설비·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 소재를 개발하고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감축 생산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생산성을 혁신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여수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산업 현장에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엔 석유산업 AI 기술 도입을 위해 산단 기업·연구기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피지컬 AI 실증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성과를 높이는 한편, 2027년 공모 예정인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 과제를 분석하는 등 여수산단 기업에 적합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공정과 고부가 소재, AI 기반 산업혁신을 연계시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 '주말의 광장' 올해 마지막 무대 올린다

7-8일 금당지구 '히어로' 콘셉트 행사

세대 공감형 공연·레트로 거리 선봬

페이백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집중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도심 속 색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차없는 도심 거리 '주말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순천 신대지구에서 열린 '주말의 광장' 무대 모습. 〈순천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올해 마지막 '주말의 광장'의 대미를 장식할 도심 속 특별한 축제를 진행한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금당지구에서 '2026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을 개최한다.

'주말의 광장'은 차 없는 도심 거리에서 문화·예술·휴식을 즐기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순천시 대표 생활문화 축제다. 올해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릴 행사는 왕조2동 주민자치회 행사와 연계해 금당 KT사거리 일원에서 대규모 거리형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히어로'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축제를 함께 만들어 온 시민과 상인, 관계자, 경찰·소방 등 모두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로 꾸며진다.

'히어로' 감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자신의 영웅에게 편지를 보내는 '주말의 서재', '태권브이' 포토존, 미용학원과 연계한 히어로 분장 체험, 히어로 가면 만들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축제의 상징인 '잔디로드'와 이색적인 '핑크로드'가 펼쳐지고 아이들을 위한 '해방놀이터'와 회전목마가 설치돼 도심 속 색다른 휴식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순천' 사업으로 진행된 지식재산(IP) 콘텐츠를 전시하고 시 캐릭터 '루미뚱이' 굿즈 팝업스토어도 운영해 문화도시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금당지구의 특색을 살린 세대 공감형 콘텐츠도 풍성하다. 펑크밴드와 정필링 밴드, 인기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의 공연을 비롯해 최여진의 '해방줌바', '태군노래자랑', 왕조2동의 레트로 거리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져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환급 행사(페이백 이벤트)도 운영해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한 해 동안 '주말의 광장'을 함께 만들어 온 시민과 상인, 관계자 모두가 지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주말의 광장'을 시민이 있는 곳으로 문화가 찾아가고 그 활기가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순천만의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순천=백상현 기자

장흥군, 축산농가 럼피스킨 병 확산 방지 총력

김현미 부군수, 방역현장 점검 실시

1만8천마리 백신 공급·집중 방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5일 "럼피스킨 병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협과 협조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부군수는 럼피스킨 병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추진 상황과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농장 내·외부, 축산 관련 시설 소독을 강화하고 장흥축협 공동방제단과 연계해 농장별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또한 럼피스킨 병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백신 공급과 함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했다. 지난달에는 6월 이후 출생한 송아지 등 추가 접종이 필요한 개체를 위한 1만8천두분의 백신 공급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문방제 업체를 통해 집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럼피스킨 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방역 활동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 접종과 해충 방제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구례군 '신혼부부·다자녀' 대출이자 지원

최대 36개월간 月25만원까지

신규 대상자 3가구 추가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오는 13일까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주택 관련(구입·전세, 신축) 대출 이자를 최대 36개월간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신규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 대상 6가구를 포함해 총 9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 본인은 군 소재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교육청,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연수

변경 사항 바탕 공정성·신뢰성 향상 초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교육지원청은 5일 "전날 청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2026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원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수는 개정된 생활기록부의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해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신뢰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전달 강사인 이양미(수북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유아 발달 관련 작성 현장 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원에서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평소 관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아 특성·변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담양교육장은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나이스를 활용한 유치원생활기록부 운영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가 모집

12일까지 신청…팀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오는 12일까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3기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사업은 지역 농·수·축산물, 자연환경,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 고유의 자원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부터 사업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참여자에게는 지역 자원 조사,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판로 개척·투자 유치 연계 등 창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접수일 기준 19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업력 7년 이내 기 창업자 등이다.

선정된 참여 팀에는 지역 자원 조사·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활동비를 팀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후 단계별 평가를 거쳐 사업화 지원 대상에게는 팀당 최대 2천만원, 재도전 트랙에는 최대 1천만원, 고도화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업 교육과 전담 멘토링, 네트워킹, 판로 개척·투자 유치 연계 등 창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신청은 URL(https://forms.gle/XT3SEyMWxMkp7nNo8)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화순=이병철 기자